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2호 [루게 제 25080호] 주제 104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이 선물을 드리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 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발전소건설을 완공함으로써 당장전 70층에 드리는 로동적 성과를 마련한 청년들격대원들과 인민군인들, 전체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건설자들과 함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을 축하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앞으로 도 조선로동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사명감과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새내길신문 《러 보블레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전체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포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쉴란트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은 우리 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을 경축하는 군민청년대합창공연 《원수님 따라 하는 땅 끝까지》가 성황리에 진행된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덜란드 《라이징 네달》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성체약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실었다. 민주공포, 도이쉴란트의 인터넷들과 네덜란드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전원들을 모시었다. 【조선중앙통신】

## 백두령장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미래는 창창하다

남조선 각계가 높이 칭송

백두의 당력과 기상을 원동으로 세계주의강국들도 감히 범접을 못 지니시고 불멸주의의 선군령도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남조선 각계층의 가슴속에 차넘치고있다. 인민의 한 시민사회단체성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일제가 위대한 백두산문화대가, 군인가정에서 탄생하시어 총과 솔뭇을 같이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역사에 뚜렷이 새겨진 혁명적 업적을 높이 모시어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수호 하시었다. 세계주의강국들도 감히 범접을 못 하는 나라, 외부의 그 어떤 압력과 제재가 통할수 없는 나라, 자주와 존엄에 사는 강대한 나라가 바로 이북이다. 남조선에서 강대국으로, 민족의 지위와 운명에서 이토록 거대한 전변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위업을 오글은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가고 계신다. 군사전문가들은 북의 강위력한 무장력은 바로 백두의 혈통을 그대로 이으신 김정은국방위원장 제1위원장의 명도를 받고있다고 하면서 그분께서는 오래전부터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보좌하시며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명도대로 보여준 계기로 되였다고 반복 하였다. 《우리 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박동기는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정치를 이어가실 의지를 지니신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인민군부대에 대한 시찰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신다고 했다. 《KBS》방송 등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헌법부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하시어 미국과는 오직 총대로 맞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경고하시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과 군사관계자들은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남조선 전지역상공에서 대규모의 《맥스 워더》공중합동군사연습이 한창일 때 이북의 령공을 다 개방해놓고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정양에 불러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성대히 개최하도록 하시어 이남과 미국당국을 기적초롱케 하시었다고 하면서 이 사실은 그분의 배짱과 당력을 그대로 보여준 계기로 되였다고 반복 하였다. 한 인터넷신문은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온 세계가 김일성, 김정일민족을 우리러보게 하겠다는 결심과 자신만만한 배짱을 지니신 짧은 지도자이다. 그분의 활동을 종합해보면 빈틈이 없이 저 먼 수까지 내다보시고 여러 분야를 동시에 장악하시면서도 신속차와 경중을 정확히 타산하시어 주권과 영토를 이룩할것을 약속하시었다. 한 남조선류학생은 《조선의 강대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령도로 인구조작은 조선, 미국도 감히 이찌지 못하고 누구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그 강대함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고 하면서 이렇게 언명하였다. 세계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 정치, 사회단체들, 진보적인류는 백두령장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계시기에 조선은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반드시 이룩할것이라고 확신하고있다. 그분을 높이 모시여 우리 민족의 미래는 창창하며 김정은국방위원장께서 그토록 넘원하신 사회주의차량강국, 조국통일의 새 아침도 기어이 밝아 올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 인민의 모든 꿈이 실현된 강성국가를 이 땅우에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 누구나 배우는全民학습체계의 생활력 힘있게 과시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첫 졸업생들이 나왔다

뜻깊은 10월에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첫 졸업생들이 나왔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원리기계강변합기업소, 평안화력발전련합기업소 비롯한 20여개 단위의 110여명의 학생들이 원격교육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제1기 졸업생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비약을 안아오려는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를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조를 높여 들고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은 나라 인민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높은 과학기술적소식을 소유한 창조적인 인민으로, 혁명과 건설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키우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위대한 구상을 철저히 추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두태전

### 졸업생들이 나왔다

이들가운데는 3년동안에 대학과정을 마친 졸업생들과 전기간 최우등의 성적을 경이한 졸업생들이 많으며 수험일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각기 공장, 기업소 일꾼들과 원격교육대학 졸업생들은 원격교육이 유능한 고인들의 강의를 받고 실시간접의용, 원격시험 등의 학습과정을 반복하여 진행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교수효과가 대단히 높고 실시공공한 지식으로 되는 교육과정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또한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강의를 받을수 있어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교육교육을 받을수 있는 우월한 교육체계이며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실리있는 교육체계라고 하고있다. 28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여러 공장, 기업소 책임일꾼들, 원격교육대학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원격교육대학 제1기 졸업식이 의의있게 진행되었다. 졸업식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누구나 일하면서 마음껏 배우는 우월한 전민학습체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우에서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이 자란 현실로 꽃피어나는것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탐구하여 첨단과학기술의 요소를 정밀해갈 결의들을 굳게 다지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편집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우월한 전민학습체계를 원격교육을 더 높은 수준에 끌어올릴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원격교육에서 이룩한 이 성과는 누구나 일하면서 배우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라고 할수 있다. 이 땅우에서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이 자란 현실로 꽃피어나는것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탐구하여 첨단과학기술의 요소를 정밀해갈 결의들을 굳게 다지였다. 【조선중앙통신】

###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세계적 수준의 차량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쫓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실천하기 위한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쫓기모임이 28일에 진행되었다. 김두일 철도성 정치국장, 령합기업소일꾼들,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창당 100주년을 맞아 우리 식의 새로운 지휘관들을 만들어낸 기업소와 변방부문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는데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고 격정적으로 넘쳐 말하였다. 오늘의 자랑스런 성과는 전적으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지닌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총성과 불굴의 정신력을 굳게 믿고있고 창조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을 안겨주시며 정열을 쏟으신 원수님의 혁명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현실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 광천광산 흑연생산 공정조업식 진행

광천광산에 흑연생산공정이 새로 꾸려져 조업하였다. 현대적인 생산공정이 훌륭히 일떠세워 광산지구에 무전장하게 매장되어있는 흑연광석을 다량채취, 다량처리하고 경제적으로 높은 흑연생산을 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조업식이 27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태풍수 함정남도당위원회 책임서, 단천지구광업총국 총국장 리산화, 관계부문, 광산의 일꾼들과 종업원, 건설자, 지원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태풍수책임비서가 조업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건설한 새로운 흑연생산공정은 당의 명도에 무한히 충직한 일꾼들과 건설자, 지원자들이 지닌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이 날은 자랑찬 결실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령도 밑에 나라의 보배광산으로 건설된 광천광산에 흑연생산공정을 새로 꾸려 질 좋은 흑연광석을

## 백두삼천리벌의 자랑-수천리 바람막이숲

위대한 수령님의 선전지령에 따라 백두삼천리벌에서는 바람막이숲조성의 새 력사가 시작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백두삼천리벌에 오시어 감자농사혁명의 불꽃을 지펴주시면서 대동단에서 바람막이숲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농작물이 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대동단에서는 전후시기로부터 현재까지 60여년간 바람막이숲조성을 주도한리사들의 일과 양묘장관리를 정상화하면서 해마다 100kg의 나무씨를 채취하여 나무모를 자재했다. 이리하여 바람막이숲이 그

## 농업과학기술이 관철된데 의의

바람막이숲을 잘 조성하면 바람피해를 막을뿐 아니라 봄과 가을에 서리가 내릴 때는 포전은 도가 3°C정도 높아진다고 한다. 바람막이숲은 백두삼천리벌을 엄격히 보호하는 《방패숲》으로 되고있다. 글 및 사진 특약기자 전철주











